

7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9,000 돌파..'기록의 날'	23일(현지시간) 미국 주식 시장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2% 이상 급등했다. 포드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데다 기존 주택 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 밖에 증가해 투자 심리가 개선. 이날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연중 최고를 경신하는 '실적랠리'를 연출. 다우지수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9,0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지수는 12연속 상승하면서 17년래 최장 랠리를 펼쳤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 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8.03포인트(2.12%) 상승한 9,069.29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 이는 작년 11월5일 이후 최고 수준.
루비니 "글로벌 경제 더블딥 빠질 것"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리서치노트를 통해 "글로벌 경제가 정부 부채 증가, 고유가, 고용 증가세 부족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10년 말이나 2011년부터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 그는 "재정적자와 채권수익률 급등, 유가 급등, 기업들의 약한 순익, 부진한 노동시장 등의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회복하고 있는 전세계 경제를 더블딥 경기침체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설명.
유가 67弗 3주새 최고...주택지표 호전 영향	주택지표 회복과 증시 급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7달러선을 넘어섰음.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2.7% 오른 배럴당 67.16달러로 마감. 장중 배럴당 69.50달러까지 상승, 지난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 PFG 베스트 리서치의 필 플린 부사장은 "수요감소로 인한 하락압력이 계속됐지만 주식시장이 유가를 동반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日 상반기 수출 42% 감소..사상 최대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동시 불황의 영향으로 자동차, 철강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다. 이 기간 미국과 유럽연합(EU) 각국에 대한 수출도 절반으로 줄었음. 그러나 수입도 함께 감소하면서 이 기간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무역수지 흑자액은 83억엔으로 반기 기준으로는 2기만에 흑자로 전환. 또 지난달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의 4.9배인 5,080억엔으로 1년 8개월 만에 전년 동월 수준을 넘어섰음. 수입은 41.9% 감소한 4조920억엔, 수출은 35.7% 감소한 4조6,000억엔이었음.

제목	주요 내용
위기=기회! 현대차 세계점유율 5%돌파	현대차는 23일 기업설명회를 갖고 지난 2분기에 판매 40만3112대 매출액 8조799억 원 영업이익 6,573억 원 당기순이익 8119억 원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9조1,068억 원)에 비해 11.3%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625억 원) 대비 소폭(0.8%) 감소하는데 그쳤다. 당기순이익은 해외공장의 실적개선에 따른 지분법 이익증가로 전년 동기(5,469억 원)에 비해 48.4%나 급증.
LG과워콤, 14분기 연속 두자리 성장	LG과워콤은 23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매출 3,610억원, 영업이익 280억원, 당기순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5%와 20.1% 늘어난 수치. 이에 따라 LG과워콤은 2006년 1분기부터 14분기 연속으로 두자리수 매출성장(전년동기대비)을 달성하게 됐다. LG과워콤은 지속적인 성장세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사업의 지속적인 호조와 함께 법인사업의 성장세 유지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
금호타이어 "맨유 초청 효과 300억원	회사 측은 박지성 선수가 뛰는 맨유의 방한 경기로 2007년 200억 원의 홍보 효과를 얻은 데 이어 올해 대회도 전 좌석이 조기 매진되고 텔레비전에 생중계되면서 약 300억 원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 김종호 금호타이어 사장은 "지난해 축구 중주국인 영국에서의 매출이 2006년 대비 56.5% 증가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맨유 팬이 있는 중국에서도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다"며 "맨유와의 파트너십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매출 증대까지 연결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